



돈의 가치부터 설정하자

기업은행, 연대보증제 폐지

자산가치 오를수록 투기심리 커

코스피지수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개인들의 자산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주식형 펀드 잔고가 70조를 넘어섰고, 하루에 5천억원 이상의 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6개월 연속 상승하는 유례없는 강세장 속에서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이뤄졌다. 한편으로 원칙을 지키는 투자가 아닌 '남들이 버니까 나도 한다'는 식의 묻지마 투자가 늘어나는 것 같아 우려스럽기도 하다.

공사례가 가져다주는 성취감에 자신을 전문가라 착각하게 만들어 무리한 투자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이러한 원칙없는 투자패턴은 실패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단순한 재테크와 단순한 재무목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돈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즉, 돈이 우리의 삶에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 한번 정도는 생각해볼아야 하는 것이다. 사람마다 돈에 대한 가치는 다를 수 있다. 혹자는 돈이 필요한 이유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일 수 있고, 다른 이는 안정감을 가지고 성취감을 느끼는데 돈의 가치가 필요할 수 있다. 최근 재무상담을 한 부부의 예를 들

'남들이 버니까 나도...' 식 묻지마 투자는 금물 재무목표·투자 포트폴리오 있어야 행복한 부자

어보겠다. 이 부부는 아내가 10년 정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고, 남편은 방향을 끝내고 몇 개월 전 사업을 시작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었다. 남편에게 돈의 가치에 대해 물어보니 "아내가 생계를 책임지는 소득 활동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이 소득 활동을 열심히 한 후 은퇴했을 때 아내가 상류층은 아니

더라도 중산층의 생활을 누릴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했다. 이 남편에게 돈은 아내가 가사에 전념할 수 있게 해주고, 가족이 안정적으로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가치를 부부가 공유하고 그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재무목표와 투자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간다면 굳이 거액자산가가 아니더라도 마음만큼은 행복한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맞벌이가 늘면서 자기 자산을 자기 가 관리하는 가정과 부부간에 대화가 단절되는 가정이 늘어가고 있다. 이런 가정일수록 삶에 대한 가치나 목적보다는 남들에 휩쓸려가는 투자패턴을 보기가 쉽다. 단순한 재테크로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은 가난한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부부간에 대화하고 돈의 가치에 대해 논해보는 것은 삶에 있어 조그마한 변화일 수 있지만, 행복감의 크기가 좌우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일이다. 독자 여러분도 오늘 하루 배우자에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 "우리 오늘 왜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해보자"고. (TNV 어드바이저 FP팀장)

기업은행은 다음달부터 개인과 기업에 대출할 때 세우도록 돼 있는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고 대출 차주의 신용도에 따라서만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고 26일 밝혔다. 은행권에서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업주와 공동경영자, 과점주인 임원 등 실제 기업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소호창업대출 등 대출상품의 특성상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연대보증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연대보증 신용대출도 만기 때까지는 연대보증인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의 신용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야 하고 리스크도 일부 떠안아야 하는 측면이 있지만 대출 때 연대보증인을 세우야 하는데 다른 고객의 불필요한 노력과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은행원 임금피크제 정년 60세로 연장

은행원의 임금피크제 정년이 만 60세로 1년 늘어난다. 26일 은행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은행측은 최근 공동 임금단체협상을 통해 이같은 정년 연장안에 잠정 합의했다.

현재 은행원의 일반 정년은 만 58세이지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은행들의 경우 만 59세가 적용된다.

노조는 전체 정년을 일반적으로 2년 연장하는 안을 요구했지만 은행측과 협상 과정에서 일반 정년은 58세로 유지하되 임금피크제 정년을 1년 늘리는 데 합의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단계로 '60세 정년'이라는 데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노조 산하 33개 금융기관 가운데 우리와 산업, 기업, 수출입은행 등 8개사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있다.

고용불안 증가...체감 실업률 8.1%

공식 실업률 3.4%보다 2배 넘어...고용사정 악화

우리나라 실업률의 절대수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가장 낮은 정도로 양호하지만, 불안정 고용의 증가속도가 빨라 체감 고용사정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경제연구원은 26일 '체감실업률 지표로 본 최근 고용시장'이라는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다른 주요 선진국의 체감실업률을 미국이 체감실업률 지표를 작성하는 것과 방식으로 산출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기존 실업자에 더해 구직단념자와 한계근로자, 경제적 이유로 인한 파트타임 취업자를 모두 실업자로 간주

해 산출한 결과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의 체감실업률은 공식실업률 3.4%의 2배가 훨씬 넘는 8.1%에 달했다고 밝혔다.

기존 실업자를 제외하면 체감실업률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주당 근로시간이 19시간 이하인 단시간 취업자였다.

연구원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에는 전체 취업자 가운데 1.5%에 불과했던 단시간 취업자가 올해 상반기 3배에 가까운 4.4%까지 확대됐다.

배민근 선임연구원은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노동시장이 급변하면서 단시간 취업자 비중이 크게 높아졌고, 최근에는

안만하게 상승하고 있다"면서 "단시간 취업의 증가는 경제 전체적으로는 고용의 유연성 증가로 해석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비정규직 고용불안 문제를 겪고 있는 핵심계층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G7국가의 체감실업률과 비교해보면 영국, 캐나다, 미국 등 일반적으로 노동시간이 유연한 것으로 평가되는 나라의 체감실업률은 높았고 독일이나 프랑스 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연구원은 특히 우리나라의 체감실업률은 1995년 3.7%에서 2005년 7.8%로 10년간 4.1%포인트나 높아져 OECD회원국들의 평균 변화폭 0.8%포인트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G7국가들과 비교해서도 통틀어 겪은 독일 다음으로 높았다고 분석했다.



애니콜-BMW 프리미엄 마케팅 삼성 애니콜이 세계적 명차 BMW와 손을 잡고 '프리미엄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최근 출시한 'UCC폰(SCH-B750)'이 BMW 5시리즈 가운데 528i 스포츠, 530i, 550i, M5의 4가지 모델의 기본 사양으로 포함됐다"고 26일 밝혔다.

코스피 2,000 '1일천하'?

외국인 차익매물 쏟아져 40.68P 급락

코스피지수가 외국인의 차익매물을 버티지 못하고 2,000 돌파 하루만에 급락세로 전환했다.

26일 코스피지수는 전날 대비 40.68포인트(2.03%) 급락한 1,963.54로 마감했다.

이날 지수는 오후 1시까지만 해도 2,000선을 웃돌았으나 장마감 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외국인 매도규모가 4천500억원 넘어서며 맥없이 밀려들었다.

전문가들은 단기급등 부담으로 기술적인 조정이 필요한 시점인데다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공세를 지속하고 있어 추가 조정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코스피지수는 이번 상승세가 시작된

지난 2월1일 이후 무려 47.35% 급등했으나 지난 3월초 6.83%, 6월 하순 4.2% 조정받은 것을 빼고는 줄곧 상승세를 지속했다.

이날 증시 조정은 단기급등 부담이 큰 원인도 있지만 외국인의 계속된 매도공세도 큰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 향후 외국인의 움직임에 따라 조정의 깊이와 기간이 좌우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외국인은 올해들어 이날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만 3조5천억원어치를 순매도했으며 코스피지수가 1,750선에 육박하던 지난 6월5일부터는 무려 6조9천34억원어치를 처분했다. 이같은 외국인 대규모 매도물량은 매

일 2천억~3천억 이상 들어오는 국내 주식형펀드 자금과 개인투자자들이 받아 내었다.

그러나 지수가 2,000선을 넘어서며 차익실현 욕구가 높아진 상황에서는 외국인 매물공세를 언제까지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증시가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때가 됐으며 코스피지수 20일 이동평균선이 지나는 1,900선이 중요한 지지선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신한증권 김중현 애널리스트는 "2,000 안착까지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과격한 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지수가 조정 받을 때 조신 등 주도주를 저가에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중고생 휴대전화 평균요금 3만8,414원

정액제 가입불구 성인과 비슷

정액제 서비스에 가입해 있는 중고생들의 휴대전화 요금에 일반 성인과 비슷한 3만8천414원이라는 정액요금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YMCA는 서울·수도권의 중·고생 78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휴대전화 요금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고생 10명중 8.5명(84.9%)이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고, 조사대상 중고생의 한달 평균 용돈은 3만1천35원인 반면 휴대전화 요금은 이보다 24% 초과한 3만8천414원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서울YMCA는 특히 통상 청소년 요금제가 성인요금에 비해 싼 것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실제 청소년이 사용하는 평균 요금은 일반 가입자 평균요금 3만8천226원과 별 차이가 없으며 이는 문자메시지(SMS), 플렉스 톨, 추가충전, 무선 데이터 통신 사용 등 추가요금 부담때문

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고생의 하루 평균 문자(SMS) 이용량은 92건인데 한 달로 환산하면 2천760건 가량으로 이들이 성인이 된 후 이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면 문자요금만 한 달 8만2천800원에 달해 기본료와 통화료를 추가하면 한 달 통신비 10만원이 훌쩍 넘는 사용패턴을 갖게 된다고 분석했다.

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중고생 가운데 31%(205명)가 플렉스 톨을 이용한 경험이 있고 그 평균금액은 2천900원이며 최대 10만원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액요금제를 쓰는 중고생 가운데 43.1%(288명)가 충전(사용료가 정액한도를 넘었을 때 추가한도를 늘리는 것) 경험이 있고 평균 3천570원을 충전했으며 최대 7만원까지 추가 한도를 늘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 농산물 안전합니다

농약잔류 조사서 허용기준 미만 검출

광주·전남에서 상반기 생산된 농산물은 농약이 대부분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돼 대체로 안전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1~6월 중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생산·저장·출하 단계의 농산물 87개 품목 3천15건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것은 14품목 25건이었다"고 26일 밝혔다.

농관원은 부추와 깻잎, 시금치 등 허용기준을 초과한 품목에 대해 출하연기 또는 폐기 조치했다.

또 광주시와 전남도 교육청이 함께 5~6월 실시한 학교급식 등 단체급식 납품용 농산물 18품목 44건에 대한 조사 결과,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수출농산물 3품목 150건에 대한 조사에서도 파프리카 1건, 멜론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관원은 장마철 농약 사용 증가에 대비해 상추와 오이, 풋고추, 콩나물 등 9가지 품목에 대해 8월 말까지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삼성 "위기 아니다"

매출·세전이익 이례적 공개 변지는 '위기론' 진화 나서

삼성그룹이 변지고 있는 '삼성 위기론' 차단과 함께 잠복해있는 '낙관론' 전파를 위한 긴급 처방에 나섰다.

삼성 윤순봉 홍보팀장(부사장)은 2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자체 집계한 상반기 그룹 매출과 세전이익을 이례적으로 공개하고 "선방했다"는 평가를 내놓으면서 하반기에도 반도체 경기 회복에 힘입어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삼성의 이 같은 행보는 최근 그룹 중추인 삼성전자가 D램값 하락의 직

격탄을 맞아 2001년 4·4분기 이래 최악의 실적을 낸 데다 전자 계열사들을 중심으로 명예퇴직과 조직재편 이슈가 부각되면서 '삼성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처방전 성격이 짙다.

실제로 윤 팀장은 이날 "(연료비도 가) 소실이 많고 추적이 많아서 바로 잡으려 왔다"고 강조하며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과 SDI만 빼고는 각 계열사가 '순환'중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각 사업분야 매출과 세전이익은

물론 심지어 일부 영업이익률까지 세부 수치를 제시하는 '진절함'을 보였다.

그는 특히 '뉴스메이커' 삼성전자 전제로 볼 때 D램값 회복 등 반도체 경기 활성화에 따라 결국 연간 기준으로는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나은 실적을 낼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그룹 전체 연간 투자 규모도 작년의 13조5천억원에 비해 5천억원 이상 늘어난 14조~15조원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